



# 제주의 바람처럼 빠르고, 우연스러운 붓질

양상철 작가 '3일 프로젝트' 서예 특성과 제주 풍토 기반 정성·공력 대신 찰나에 중점 서귀포 풍광에 얹어진 노자 자연·인간의 공생 가치 담아



양상철의 '노자와 산방굴사'.

20년 전부터 서예와 그림, 건축 등을 융합해 다원화시키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양상철 작가가 이번엔 '3일간의 프로젝트'에 도전했다. 고향인 서귀포의 풍광을 붙잡은 '노자와 함께한 서귀포'로 이달 20-25일 서귀포시 이충섬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 그 여정을 풀어낸다.

양 작가의 열다섯 번째 개인전이 이 전시는 찰나적으로 글쓰는 이의 정성을 드러낸다는 서예의 특성을 반영해 준비했다. 서예는 본디 마라톤이 아니라 100m 달리기와 같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일과 3일, 7일 등 3일에 걸쳐 작품 천 개반수와 연

료 처리, 서귀포 풍경을 담은 야외 큰 붓질, 야외 글쓰기에 나섰다.

전시장에는 1.8m 폭에 길이 7m, 6m, 5m, 4.5m의 천 위에 먹, 아크릴, 염료 등을 이용해 각각 작업한 대작 5점이 걸린다. '영주십경' 중에서 서귀포 지역에 해당하는 '성산출일(城山出日)', '영실기암(瀛室奇巖)', '굴림추색(窟林秋色)', '산방굴사(山房窟寺)', '정방하폭(正房夏瀑)'에 노자의 도덕경을 얹어 서귀포의 자연과 삶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 했다.

그가 노자를 택한 건 오늘날 거세지고 있는 인간의 탐욕, 경쟁 논리와 무관하지 않다. 지나친 문명의 발달이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는 때에 노자사상의 상선약수(上善若水)와 무위자연(無爲自然)이 자연과 인간의 공생의 가치를 일깨운다고 봤다.

양 작가는 특히 이번 전시를 '해프닝 서예전'이라고 칭했다. 작품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그 과정에서 유희와 긴장감을 더해 즉흥적으로 연출되는 제작 행위 자체에 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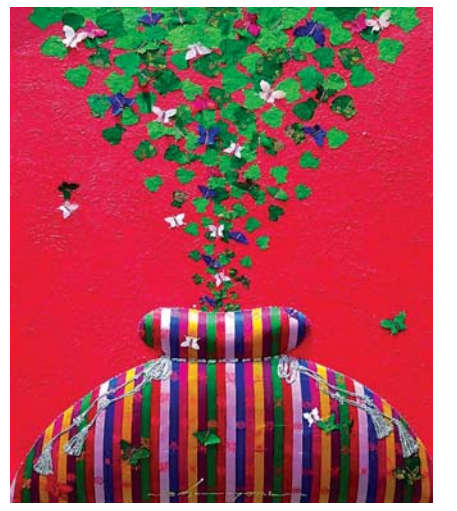
를 뒀다는 말이다.

그는 "서예술의 특성과 제주의 풍토성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물론 국내외의 대부분의 서예전시는 학서적으로 '정성'과 시간적으로 '공력'을 보여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작품 준비를 위해 '3단계 과정'을 이행하되 시간과 공력을 최소화하여 제주의 바람이 내게 준 심미로 그 바람처럼 빠르고 우연스럽게 밤낮 3일 동안 실존적 상황에서 작품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전선회기자

# 화폭 한가득 복을 짓고 나눕니다

현인갤러리 이정호 초대전 평면 작업에 복주머니 형상



이정호의 '복주머니와 나비'.

복을 비는 뜻으로 주로 정초에 어린이에게 매어 주는 복주머니. 새해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수복을 기원하고 부귀를 희망하는 글자나 그림을 수놓아 덕담과 함께 건네주는 풍습이 있었다.

루나갤러리 관장으로 지금까지 40여 회 개인전을 치러온 이정호 작가가 그같은 복주머니를 소재로 신축년 가가호호 복이 스미는 마음을 담아 제주 전시장을 찾는다. 현인갤러리(관장 김형무)가 마련한 초대전을 통해서다.

이 작가는 복주머니의 화려함과 행운을 부른다고 여기는 옛 정서에 공감해 20년 넘게 복주머니 작품을 국내는 물론 세계 전시장에 발표해 왔다. 한지와 실그를 이용해 평면 그림 위에 실제 복주머니가 올려진 듯한 입체적 형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향아리 같은 금빛의 커다란 복주머니, 눈사람처럼 아기자기한 오방색 주머니, 신문복의 '미인도'를 활용한 복주머니 등 다채롭다.

제주 전시장에는 '복상자', '복주머니', '복주머니와 나비', '부귀영화', '오방복주머니', '무병장수' 등을 선보인다. 복을 '받는다'는 개념을 넘어 복을 '짓고', '나누는' 의미가 담겼다. 이 작가는 "앞으로도 가장 한국적인 재료로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시는 이달 17일 시작돼 31일까지 계속된다. 갤러리는 제주시 도령로 이화오피스텔 2층에 있다. 문의 747-1500. 전선회기자



김강훈의 '복우(霖雨)'

# 나와 너 아닌 또 다른 우리들 있음을

김강훈 작가 '3상' 서울 전시 비 주제로 평등한 만민 꿈꿔

제주 김강훈 작가에게 비(雨)는 제3의 존재를 일깨우는 상징물이다. 나도 맞고, 당신도 맞는 비는 만민이 평등할 수 있다는 걸 떠올리게 한다. 나도, 그도 아닌 또 다른 우리들이 있음을 안다면 타자를 함부로 걷어차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근래 비를 주제로 작업하고 있는 그가 서울 아트스페이스 0(종로구 삼청로 9길 상진빌딩 1층)에서 '3상(象)'이란 제목을 달고 개인전을 열

고 있다. 캔버스에 아크릴물감, 또는 레진을 더해 완성한 2021년 신작들로 '후려치는 비II', '복우(霖雨)', '망우(亮雨)', '하우(霞雨)', '우심(雨心)' 등 작품마다 공통적으로 비가 등장한다.

전시에 붙여진 '코끼리 상(象)'은 미술 용어와 무관하지 않은 한자다. 추상미술, 구상미술을 일컬을 때 그 한자를 쓴다. 김 작가는 이 점에 착안해 '3번째 코끼리'란 뜻으로 '3상'이란 글자를 끌어왔다. 하늘에서 땅으로 낙하하거나, 유리창에 주르르 흘러내리는 비를 표현함으로써 나와 너의 처지와 닮은 누군가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한다.

미술사가인 김영호 중앙대 교수는 '비의 메타포-김강훈의 비 그림' 제하의 평론에서 "작가는 비를 통해 자연 현상의 본성과 순환의 원리에 대해 성찰하고, 그 자연에 머무는 존재들의 유기적 속성과 변화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전시 작품은 20점에 이른다. 이달 17일 시작된 전시는 23일까지 이어진다. 김 작가는 중국 중앙미술학원 회화와 2공작실 학사, 3공작실 석사를 졸업했고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6년 제주 우수 청년작가, 2017년과 2019년 청년 유망예술가 육성사업 선정 경력이 있다. 전선회기자

# 문화가 쪽지

## 제주학 총서 출판비 지원

제주학연구센터는 2021년 제주학 총서와 번역서 출판비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제주학 관련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의 단행본 발간 ▷제주학 관련 중문, 일문, 영문 등 외국어 서적의 국문 번역 단행본 발간 ▷제주학 관련 국문 서적의 중문, 일문, 영문 등 외국어 번역 단행본 발간이다. 총서 1건에 500만원 이내, 번역서 1건에 1000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신청서 접수는 이달 19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747-6137.

## 계간지 '4·3과 평화' 봄호

제주4·3평화재단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을 담아 기획지 '4·3과 평화' 2021년 봄호(4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특별인터뷰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을 만났고 뉴스포커스에서는 4·3

특별법 개정안 전문을 실었다. 기획적 '4·3 아카이브전 기록이 된 흔적'을 다뤘고, 최태성 별첨한국사연구소장의 '코로나19 이후 4·3교육과 세대전승'에 대한 논단, 4·3생존수형인 제심재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정주 할머니의 증언, 홍산초등학교 이야기 등도 만날 수 있다.

## 제주어연구소 '제주어' 4호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가 제주어 전문 정기간행물 '제주어' 4호를 펴냈다.

이번 호는 '연암 현평호를 그리다'를 특집으로 묶어 지난해 8월 제주대에서 열린 '연암 현평호 선생 탄생 100돌 기념-연암 현평호를 그리다: 그의 삶과 학문' 발표 내용을 수정해 실었다. 이와 함께 '사진으로 읽는 제주-제주어'에서는 이광진 사진가의 1970년대 팽이치기와 고무줄놀이 사진, 1960년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옛 결혼사진이 실렸다. '제주어 이야기'에서는 제주어에 대한 이해를 돕는 4편의 글이 수록됐다.

# '유토피아 갤러리' 열린 창작 공간으로

시설 노후화 개축 거쳐 9월부터 재가동 예정

서귀포시 칠십리시공원에 자리 잡은 '유토피아 갤러리'가 탈바꿈한다. 개

축을 통해 9월부터 예술인과 지역민의 열린 창작공간으로 새로 태어날 예정이다.

유토피아 갤러리는 주택으로 활용하던 공간으로 201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전시장으로 바뀌

었다. 작가의 산책길 코스에 포함된 이색 예술공간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시설 노후화로 2019년에는 건축물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난 2월 건물 철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개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건축되는 유토피아 갤러리는 지상 2층 건축

면적 164.6㎡ 규모로 8월 준공을 목표로 뒀다.

이 공간은 개방형 갤러리나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된다. 서귀포시는 8월 중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간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선회기자 sunny@ihalla.com

**축**  
CONGRATULATIONS  
**취 득**  
**동의대학교 경영학박사**

**홍 찬 표**  
(세무법인 위(WE) 대표 세무사)

동의대학교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심우회 회원 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득**  
**동의대학교 경영학박사**

**홍 찬 표**  
(세무법인 위(WE) 대표 세무사)

동의대학교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양홍씨 정원공계 향세앗 문중회 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득**  
**농 학 박 사**

**김 재 우**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농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 귀 친 구**

**축**  
CONGRATULATIONS  
**취 득**  
**경희대학교 문학박사**

**이 건 희**  
(고부이씨 35세, 신성여자고등학교 46회 졸업)  
부: 이근실 · 모: 강문순

경희대학교 문학박사(국제언어학)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상 우 회(부모님 친목) 회원일동**